

창세기 공부 열 번째 시간입니다.

4장 5절부터 기록됩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의 정성스러운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정성스러운 제사는 받으셨습니다.” 그게 존속살해의 단초가 되었습니다.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성경 읽기에서 약간 착오가 이런 데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잘못이네 하나님이 왜 가인의 제사를 안 받고 아벨의 제사만 받아서 이런 다툼이 일어나게 했지 질문하는 거가 질문이야 한두 번 할 수 있겠지만 그거를 거기에 이제 포커스를 두고 성경을 읽으면 잘못입니다. 성서 기자가 말하려고 하는 핵심이 거기에 있는 게 아닌데 그 사족과 같은 것을 붙들고 늘어지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5절 후반절에 보면 “가인이 없이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게 문제인거죠. 만약에 가인이 하나님께서 자기 제물을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뭐 그러시구나 안받으셨네 다음엔 또 받아주시겠지 내 동생이 고생을 더 많이 했으니까 내 동생 제사를 먼저 받으시는가보다’ 하고 넘어갔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거기에 이제 가인의 한계가 있는 거죠. 뭐든 인류 전쟁도 비슷한 거 아닙니까 기분 나쁜 거예요. 억울한 거예요. 우크라이나 전쟁 지금 러시아가 침략 침공하고 신냉전의 하나의 상징처럼 되어 있는 전쟁도 마찬가지예요. 분한 겁니다. 안색까지 변하는 겁니다. 못 참는 거죠. 거기에는 정치인들의 선동도 크게 작용하겠죠.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저 문장은 잘 기억해 두어야 되겠습니다. 저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다른 상태에 떨어질 때가 정말 많거든요.

뭐 그럴만한 일을 우리가 당하니까 어쩔 수 없다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왜 당하고 살아 그러면 안 되지 짜증이 나는 겁니다. 분하고요 안색이 변합니다. 죽일 듯이 이제 상대방을 공격하죠. 경우에 따라서 그렇게 화도 내고 분해할 때가 있긴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부처처럼 살겠어요 천사처럼 어떻게 살겠습니까 저도 이제 비슷합니다. 문제는 매사에 저렇게 되는 겁니다. 매사가 분한 거예요. 그냥 어리석은 거죠. 이미 좋은 게 아홉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좋지 않게 되었다고 해서 분해진 겁니다. 실제로 그런 일 많아요 우리 일상을 잘 돌아보면 많은 사람들이 저런 태도로 삽니다. 불행한 겁니다. 제 설교로 말씀드려서 그렇긴 합니다.

6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나” 이 질문이 좀 우습긴 합니다. 하나님께 드린 제물들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 때문에 분해하는 것을 다 아시잖아요 근데 그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이 텍스트가 말하려는 것은 하나님께 제물에 받아들여졌다 아니dade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그 가인의 그 삶의 태도에 거기에 핵심이 있는 겁니다. 바로 그 5절 후반절 부분에서 제가 설교조로 설명한 그 얘기에요 분해하는 거거든요. 남편한테도 분해하고 아내한테도 분해하고 부모한테도 분해하고 자식에게도 분해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떻게 하면 분해하지 않고 사나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그렇게 알아두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의 심연에서 벌어지는 어떤 불행한 사태를 저렇게 표현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묻는다고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 말하듯이 이렇게 묻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이게 다 문학적인 표현입니다. 시적인 표현이에요 시에서는 꽃과 나비와 사람이 서로 이야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읽으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 7 절 “네가 선을 행하면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어려운 표현이에요. 죄가 문에 얹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 지니라. 죄가 어디에서 왔어요? 악이 어디서 왔어요? 여기서 이원론적인 차원으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악을 존재론적으로 확실한 실체로 보는 게 이원론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선을 만드셨고 그보다 악의 근원이 악을 만들었다 존재론적으로 악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건 이제 성서적인 게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 이외에 하나님과 하나님에게 버금갈 수 있는 악의 존재론적 근원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악은 다 하수인이에요 하나님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좀 이런 이야기가 이상하죠. 아 그럼 하나님께서 그 두가지 문제가 제기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첫째 악을 만드셨단 말인가 그런 질문이 가능해요. 하나님만이 창조주라고 한다면 그 악, 죄를 하나님 만드신 거냐? 그런 질문이 타당하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전능한 창조주라고 한다면 악이 발현됐다고 하더라도 다스려야 되지 않냐 악이 더 이상 악을 행할 수 없게 만들어야 되지 않냐 그런 질문이 가능한 겁니다. 그것에 대한 지금 완전한 대답을 얻지는 못했습니다. 여러가지 방식으로 대답을 하긴 합니다. 제가 이 시간에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겠어요

죄가 문에 얹드려 있느니라 표현이 재밌죠. 숨어 있는 거예요 이제 들어올 수 있습니다. 문의 얹드려 있다 그럼 이제 들어오게 되면 이렇게 죄의 우리가 휘말리게 되는 거죠. 그다음 표현도 재밌어요. **죄가 너를 원하나 나는 죄를 다스릴 지니라.** 가인이 아벨을 죽이기 전에 벌어진 장면입니다. 가인의 저 이야기를 듣고 다른 선택을 할 수도 있었어요 아벨을 죽이지 않고 다른 선택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죄를 다스리면 됐는데 어찌 된건지 그렇게 못하네요. 표현이 재밌어요. **죄가 너를 원하나** 보십시오. 우리가 가인의 입장에서 볼 때 동생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거 같으니 못 견딘단 말이에요 뭐라는 거예요. 평소에는 자기 형이라고 생각해서 동생을 타이르기도 하고 잘 다스렸는데 동생 대우를 해주고 자기가 형으로서 존경을 받았는데 그냥 거꾸로 돼 버렸잖아요. 이거는 이제 감당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 분한 생각들이 가인의 영혼에 조금 조금씩 차기 시작해서 점점 많아지는 겁니다.

죄가 너를 원한다라는 문장이 그러한 우리의 영적 실존을 밝힌 게 아닐까요. 죄를 다스려야죠. 죄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분해하지 않을 수는 없어요. 사람에 따라서 차이가 이게 있으나 아 그렇습니다. 질투 하고요 경쟁심이 발동하고요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내가 누구와의 경쟁에서 졌을 때 피해의식이 있잖아요 두루두루 여러 가지 점에서 그렇습니다. 어느 누구도 우리가 문 앞에 와 있는 문에 있는 그 상태를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문제는 그 죄를 다스리느냐 다스리지 않느냐에 있습니다.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벌어지는 이 사회의 모든 파렴치한 일들이 반드시 그 사람들에게만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모두에게 그런 가능성은 있습니다. 죄가 문 앞에 얹드려 있거든요. 죄를 다스려야 되는데 어떻게 가능한지 그것은 또 뭐 다른 문제입니다. 기도하면 다 되지 이런 말로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자 8절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둘이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입니다.** 끔찍한 일이 벌어졌네요 또 요 8절도 드라이한 문장입니다. 가인이 그의 아우 형제살해예요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무슨 말을 했을까요. 아 너 하나님께 제4 드릴 때

양을 어떻게 골라서 골랐지라든지 아니면 아침을 먹었나 그런 얘기를 했을까요. 아니면 나하고 같이 둘로 가자 이렇게 모의를 꾸미는 말을 한 것일까요. 말을 합니다. 인간이 인간에게 말을 합니다.

이것도 좀 위대한 사건이죠. 말을 한다는 게 말이 통한다는 게 그렇습니다. 말도 말 나름이거든요 그 독이 들을 수 있죠. 반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풍부하게 만드는 말도 있습니다. 겉으로는 세련됐는데 속으로는 자기 자신과 상대방을 병들게 하는 말들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치에서는 말들이 너무 난폭한 것 같아요. 난폭하다는 표현으로는 부족합니다. 완전히 상대방을 악마화 하는 방식의 말들이 오갑니다. 제가 뭐 양비론을 펼칠 생각은 없어요 그런데 한쪽이 말도 되지 않는 태도를 보인다고 해서 다른 쪽마저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이것도 간략한 표현인데 장면을 생각하면 끔찍하기도 하고 아득하기도 합니다. 누가 누구를 죽이는 일이잖아요 생명을 빼앗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소유인 생명을 파괴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죽였죠? 어떻게 죽였다는 말이 안 나오죠. 왜 여기 제가 성경을 자세하게 읽지 않아서 그런지 그 장면이 제 머릿속에 그려지지 않습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알고 있기로는 가인이 아벨을 둘로 쳐서 죽인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그 얘기가 안 나오네요 여기 말고 다른 단락에서 나오나요 아니면 뭐 신약 성경 어디 다른 데서 나오나요 아 제가 지금 그 기억이 전혀 나지 않습니다. 머리에 그려져 있는 그림으로 본다면 둘로 가인이 아벨 동생을 쳐서 죽이는 거거든요 여기 오늘 여기 본문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가히 도를 어제도 리라고 생각합시다 아니면 목을 졸라서 죽였을까요. 아 둘 일텐데 어떻게 여기 나는 가인이 돌을 들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이렇게 돼 있을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네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성경에 나오는 어떤 장면을 정확하게가 아니라 어렵풋하게 기억하고 있는 게 많은 거 같아요.

쳐 죽이니라라고 하는 이 히브리 말이 어떤 건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그 단어에 이 둘로 죽인다는 뜻이 내포돼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자신에게 말씀드릴 수 없어요 우리만 성경만 보고 있습니다. 쳐 죽인다고 내 둘로 쳐서 죽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구타해서 죽일 수도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는 오늘 본문이 명확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아주 명백한데 성경 기자는 그 잔인한 장면을 정확하게 묘사할 생각이 없습니다.

어쨌든 이 가인이 동생을 때려서 죽이잖아요 둘로 치든지 폭력을 행사든지요 돌을 들었다고 합시다. 그때 겁에 질려 있는 아벨의 얼굴을 보았을까요. 이걸 화가라면 그림으로 잘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분한 표정 분에서 안색이 변한 그 가인의 얼굴을 그림으로 그릴 수 있겠죠. 그리고 아벨보다는 힘도 세겠죠. 세야 됩니다. 돌을 들고 있는 그 모습을 그림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겁에 질려서 자기 형인 단 돌이에요 현재는. 형이 평생 그렇게 친하게 지내던 형이 자기를 향해서 돌을 집어 내려치는 그 순간에 아벨의 표정은 어땠을까요. 표정은 표정이고 또 그들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이런 일들이 인류 역사의 반복해서 일어났습니다. 인간이 인간을 죽입니다. 존속살해도 일어납니다. 전쟁은 쉬지가 않습니다. 요즘 전쟁은 저런 직접 음 사람을 보고 죽이는 게 아니라 기계 버튼으로 죽이니까 아니면 좀 멀리서 포격으로 미사일도 쏘고 총을 쏜다고 하

더라도 그렇게 바로 붙어서 상대방을 죽이는 게 아니라서 죄책감은 덜하다 그래요. 이게 그러니까 전쟁이 컴퓨터 게임처럼 진행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더 폭력적으로 될 수 있는 겁니다.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간단한 문장인데 인류 역사에서 반복한 끔찍한 이야기입니다.

여호와께서 9 절입니다.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유명한 문장입니다. 유명한 구절입니다.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내가 알지 못한다는 말은 거짓말이죠. 아벨을 자기가 죽였으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처리했는지를 모르겠습시다. 무덤에 묻었을까요. 아니면 땅에 묻었을까요. 내가 알지 못한다는 말 이게 거짓말이긴 한데 근데 또 요 말 자체만 놓고 본다면 틀린건 아니에요. 지금은 자기 모르니까 아벨이 어디 있는지 아 그 살인 사건은 이미 끝나고 이제는 바르게 생활하고 있는 가 이니까 지금 당장은 아벨이 어디 있는지 모른다는 말은 곧 말 자체는 틀린게 아닙니다.

이 말이라고 하는게 그렇습니다. 아와 어가 다르다고 하지 않습니까 어떤 말 단어 문장이 신체적 진실을 얘기하는지 아니면 표면적인 진실만 이야기하는지는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 표면적인 사실 안에 숨는 경우가 많죠. 나는 모릅니다. 앞에서는 알았는데 지금은 모릅니다. 이 뜻이에요. 숨는 거예요 그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라는 그런 말까지 내뱉습시다. 저것도 거짓말 아니죠. 아우를 지키는 자가 아니라는 말 자체는 사실이죠. 근데 저기에는 많은 의도가 숨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불만이 저기 있는거예요. 이렇게 된 데에는 당신 하나님의 책임이 있지 않냐 너 왜 나한테 그걸 묻냐 내가 그것을 지키는 자냐 지키는 자는 바로 당신 아니냐 왜 나에게 묻냐 이런 등등의 불만들이 말속에 들어 있습니다.

이 문장이 아주 유명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를 들어 볼게요. 저 문장은 다음과 같은 의미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다 뭐다해서 여러가지 위기를 이야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후위기가 오게 되면 이제 생명체 모두의 존재 근거가 위협받는 겁니다. 자세한 내용이야 여러분들 다 아시니까 설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게 내 책임 아니다. 모두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라는 말 을 늘 우리는 입에 달고 삼니다. 기후위기 이거 내가 기운 내 책임인가 내가 할 일인가 나는 열심히 학생들 가르치기만 하면 되고 나는 뭐 자동차 만들면 되고 나는 이 사회가 나에게 요구한 거 잘 했고 가족도 잘 보살폈고 그렇게 그렇게 살았는데 내가 이 지구의 생태계를 지키는 잔가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 무책임한 사람이라서 그럴 게 아니에요. 이건 도덕성이라든지 인격하고도 상관없습시다. 이 시대가 우리를 그렇게 만들고 있죠.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많은 그 신학자들의 저 구절을 인용해서 전쟁의 문제 생태의 문제들을 다루었습니다. 전쟁에서 우크라이나 지금 벌어지는 끔찍한 일들 알잖아요. 누구 책임입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잖아요? 군인들만이 아니라 민간인들도 죽잖아요 지금 근본적으로 보면 러시아와 미국의 싸움 이잖아요? 이렇게 저렇게 뭐 다른 이야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 그렇습시다. 미국 대통령이 아마 저런 말을 할 겁니다. 내가 내 그 죽은 사람들의 생명을 지키는 자냐 그 저놈들이 잘못해서 그렇게 됐지 러시아는 또 이쪽에 책임을 묻겠죠. 서로 자기 책임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인가 아니다. 이렇게 인간은 말합니다. 생각합니다. 오래전에 있었던 저 아포르즘 이 경구가 21세기 첨단

시대에 개인과 사회와 국제 역학 속에서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인간의 한계죠.

9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거 꼭 기억해 뒀야 될 말씀이라서요.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과실을 먹고 숨었을 때 아담아 어디 있느냐고 하나님께서 찾으신 것처럼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묻습니다. 전쟁에서 죽은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가장 폭력으로 삶을 완전히 훼손당한 이들이 어디 있느냐 이 풍요로운 시절에 생존 자체가 위태로운 이들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묻죠. 질문을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